

김태진 “타격도 3루 수비도 자신감에 달렸더라”



김태진

꾸준히 선발 출전 안타 행진 ... 0.343 타율 5타점

체력 보완해 한결같은 투지와 열정 보여주겠다



자신감을 찾은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태진이 '3루 수석'에 나선다.

5월 KIA에서 가장 꾸준한 타격감을 보이는 타자는 김태진이다. 그는 12일 경기 전까지 5월 8경기에 나와 35타수 12안타, 0.343의 타율을 기록하며 5타점도 올렸다.

때를 기다리던 김태진에게 팀의 위기는 기회가 됐다.

지난 4월 27일 시즌 처음 1군에 콜업된 그는 올 시즌 주전 3루수로 자리한 류지혁이 허벅지 통증으로 4월 29일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3루 자리에 섰다.

4월 30일 KT전에서 3루수로 처음 선발 출장한 김태진은 이후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첫 선발 경기에서 안타를 만든 김태진은 안타 행진을 이어가면서 윌리엄스 감독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류지혁이 다시 엔트리에 등록됐지만 3루수에 김태진의 이름이 있었다.

부상에서 돌아온 류지혁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공격 극대화를 위해 김태진에게 3루를 맡겼다.

김태진은 “매 경기 안타 하나씩은 치려고 하다 보니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감 좋을 때 계속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 만족스럽다”고 5월 흐름을 이야기했다.

기본 좋은 5월을 맞이까지 김태진은 자신과 싸움을 했다.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그는 2군에서 ‘자신감 찾기’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김태진은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 안 좋았다. 자신감도 없었다”며 “2군 코치님들이 성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셨다. 여기에서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하는 시간이니 성격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다. 한 번 뒤 돌아 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2군에서의 준비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는 끊임없는 대화로 자신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김태진은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했던 게 올라와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 이범호 총괄 코치와 대화를 많이 했다. 내가 8년 차인데 코치님이 ‘3할을 칠 수 있는 데 안 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며 “지금까지 꾸준하지는 못했다”면서 코치님이 편하

게 많이 이야기해주셨다. 되든 안 되든 가서 질문도 많이 했다. ‘이번 타석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말했다.

1군에 와서도 부담감을 내려놓고 편하게 시도하고 도전하려 한다.

김태진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시도해보려고 했다. 해보고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하니 꽤 편안하게 들어갔다. 조금씩 하면 오히려 무너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았다. 압박감에서 벗어난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신감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관건은 ‘꾸준함’이다. 수비 안정감도 속제다. 김태진은 체력과 정신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 있다.

김태진은 “많이 움직이다 보니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다. 아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안 떨어트리려고 노력하고 알아가는 단계다”며 “수비는 기본만 하자는 생각인데 그게 잘 안 된다. 한번 어려우면 자신감이 있다가도 떨어진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라운드에서는 한결같이 투지와 열정 보여려고 한다. 그게 내 스타일이기도 하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식 단비 같은 홈런포 ... 윌리엄스 감독 “선구안이 좋았다”

“치기 좋은 볼 잘 골라서 스윙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백리그에서 378개의 공을 넘긴 ‘홈런타자’ 출신 윌리엄스 감독이 말한 홈런 비결은 ‘선구안’이었다.

올 시즌 홈런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에 지난 11일 단비 같은 홈런이 나왔다.

0-0으로 맞선 2회말 1사 1-2루에서 김민식이 켈리의 137km 슬라이더를 우측으로 넘기면서 3점포를 만들었다.

팀은 물론 김민식에게도 ‘귀한 홈런’이었다. KIA는 앞선 30경기에서 단 9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팀 홈런 최하위, 그라운드를 돈 김민식도 프로 통산 15개의 홈런에 불과했다.

‘깜짝 홈런’으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KIA는 켈리를 상대로 7-1 승리를 완성하며 4연패에서 탈출했다.

승리의 주인공이 된 ‘홈런타자’ 김민식은 “자구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파울 쳤던 구종이랑 같은 게 실투성으로 들어왔다. 운이 좋았다. 잘 하면 넘어가겠다고 생각하면서 타자랑 야수를 보고 있었다”고 웃었다.

“김민식이 중요한 순간에 3점 홈런을 터뜨려 줬 초반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며 김민식의 홈런에 좋은 점수를 준 윌리엄스 감독은 ‘선구안’을 이야기했

다.

그는 “김민식의 홈런 상황에서 배트에 맞았을 때 힘을 쓰거나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홈런은 선구안과 연결된다. 치기 좋은 볼을 잘 골라서 스윙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깜짝 홈런’을 기록한 장민기에 대해서는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평가했다.

이날 맹타는 5-1로 앞서 4회 1사 만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승리투수 요건에 아웃카운트 2개가 부족했지만 투구수가 115구에 이르면서 강판이 결정됐다.

위기 상황에서 윌리엄스 감독이 선택한 선수는 이날 1군으로 복귀한 ‘고졸 루키’ 좌완 장민기였다.

장민기는 3개의 공으로 라모스를 상대로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급한 불을 끄고 프로 첫 홈런을 수확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변화가 좋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경험이 되고 공부도 됐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장민기는 “솔직히 초구가 빠졌는데 운 좋게 들어갔다. 세 번째 포크볼도 떨어뜨려야 했는데 빠졌다. 그런데 라모스가 안 쳤다(웃음)”며 “만루 상황 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홈런을 기록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식

광주FC, 수원에 역전패 ... 최하위 탈출 실패

광주FC가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면서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다.

광주가 지난 1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2021 1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새 외국인 선수 알렉스의 K리그 첫 골이 먼저 터졌지만 수원FC의 ‘외국인 듀오’ 라스와 무릴로 봉쇄에 실패하면서 승리를 내줬다.

앞선 14라운드 서울전을 쉬는 동안 수원FC에 득점에서 밀려 11위를 내줬던 광주는 이날 패배로 그대로 12위에 머물게 됐다.

전반 22분 광주가 실점 위기를 넘겼다.

뒤에서 올라온 공을 받은 수원FC의 라스가 운보상을 마주하고 오른발로 공을 터쳤지만, 운보상이 골라인 바로 앞에서 공을 멈춰세웠다.

이어 바로 광주의 역습이 전개됐고, 오른쪽 측면에서 질주한 엄지성이 중앙에 있던 헤이스를 향해 공을 띄웠다. 헤이스가 헤더를 시도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하지만 전반 33분 기다렸던 골이 터졌다.

프리킥 상황에서 헤이스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띄운 공을 알렉스가 뛰어올라 오른발 슈팅으로 연

결시켰다. 이어 수원FC 골망이 출렁이면서 광주의 선취점이 올라갔다.

1-0으로 전반전을 마감한 뒤 후반전 공방전이 전개됐다.

경기시간이 줄어들수록 양 팀의 움직임은 더 바빠졌다. 후반 23분 펠리페의 슈팅이 골키퍼 품에 안긴 뒤 바로 이어 라스가 광주 진영으로 올라가 슈팅을 날렸다.

후반 35분 김원식과 김주공이 연달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 막히면서 광주가 땅을 쳤다.

그리고 마지막 5분을 지키지 못하면서 광주가 승리에 이어 무승부를 연달아 날렸다.

후반 41분 광주 수비 맞고 나온 공을 라스가 머리로 무릴로 앞에 떨쳤다. 무릴로가 찍어찬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그대로 광주 골대를 갈랐다.

도움을 올린 라스가 3분 뒤에는 왼발슈팅으로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광주가 후반 추가 시간 이희균을 투입하면서 마지막 공세에 나섰다.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2 역전패로 끝났다. 승점 3점을 더한 수원FC는 7위까지 올라갔다.

이날 경기 전까지 10위였던 인천유나이티드도

포항스틸러스와 1-1 무승부를 기록, 9위로 올라섰다.

광주가 수원FC와 인천보다 1경기를 덜 치른 계위안이라면 위안.

이날 경기를 통해 지난 3월 20일 6라운드 제주 원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던 ‘엄살라’ 엄원상이 다시 그라운드를 밟은 것도 광주는 희망이다. 엄원상은 후반 6분 송승민과 교체해 들어가 복귀전을 치렀다.

광주 김호영 감독은 “준비한 대로 경기운영을 했고 선제득점과 함께 추가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으나 득점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공간을 내주지 않고 압박해야 했는데 무릴로와 라스의 특징이 너무 완벽했다”며 “전체적인 경기운영은 나쁘지 않았으나 경기 마무리를 잡지 못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또다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엄원상에 대해서는 “경기 감각이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도 공격적으로 상대를 흔들려는 게 아직 살아있었다. 아직 100%가 아니라 본인 실력을 맘껏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맨시티, EPL 왕좌 되찾았다

통산 7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

과르디올라 부임 3번째 트로피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진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2년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왕좌를 되찾았다.

맨시티는 1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레스터시티와 2020-2021 EPL 36라운드에서 1-2로 패하면서 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전반 10분 만에 레스터시티 루크 토머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맨유는 5분 뒤 메이슨 그린우드와 동점 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후반 21분 찰라르 쇠원 위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아 패했다.

선두 맨시티(승점 80-25승 5무 5패)의 뒤를 쫓는 2위 맨유(승점 70-20승 10무 5패)가 이날 패배로 승점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역전 우승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로써 맨시티는 2018-2019시즌 이후 두 시즌 만에 EPL 우승을 맞았다.

맨시티의 1부리그 우승은 통산 7번째다. 1936-1937시즌과 1967-1968시즌에 1위에 올랐고, EPL이 출범한 1992-1993시즌 이후 5차례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2017-2018시즌에도 정상에 올랐던 맨시티는 지난 시즌 리버풀에 밀려 3연패에 실패했지만, 올해 왕좌에 복귀하면서 최근 4시즌 중 3차례 리그 ‘챔피언’을 차지했다.

더불어 이미 리그컵(카라바오컵)에서 토트넘을 꺾은 맨시티는 올 시즌 ‘더블’(2관왕)을 달성했다.

이달 사상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에도 진출한 맨시티는 이제 ‘트레블’(3관왕)을 정조준한다.

페르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6년 맨시티 지휘봉을 잡은 뒤 세 번째 EPL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축구 통계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잉글랜드 1부리그에서 부임 5년 만에 세 차례 정상에 오른 감독은 케니 달글리시(1985-1986-1987-1988-1989-1990) 이후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이다.

/연합뉴스